

 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4.8.(일)	

책 임 자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0)	담 당 자	최 성 규 사무관 (02-2100-2655)
	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 이 윤 수(02-2100-2601)		김 민 석 사무관 (02-2100-2518)
	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장 강 전(02-3145-7010)		김 진 국 부국장 (02-3145-7012)
	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권 오 현(02-3774-4020)		라 성 채 부 장 (02-3774-8580)
	예탁원 예탁결제본부장 정 승 화(051-519-1516)		최 병 길 부 장 (051-519-1710)

제 목 : 「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」 개최

1. 회의개요

- 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'18.4.8(일) 15시부터 「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」를 개최하여
- 최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발생경과 및 원인 등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

[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 개요]

- (일시) '18.4.8(일) 15:00
- (장소) 금융위원회 대회의실(정부서울청사 16층)
- (참석자)
 - (정부) 금융위원회 부위원장(주재), 증선위원, 자본시장국장, 자본시장 조사단장
 - (유관기관) 금융감독원, 한국거래소, 예탁결제원

※ <첨부> 부위원장 모두발언

2. 논의결과

- ☐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 월요일부터 특별점검을 진행하여
 - 삼성증권이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어떻게 우리사주의 개인 계좌로 주식배당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,
 - 일부 물량이 장내에서 매매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
 - 사고처리 경과 등을 확인하여 전산 시스템 및 내부통제 문제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음
- ☐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겠음
- ☐ 자조단, 금감원 및 거래소가 공조하여 관련 대량매도 계좌에 대해 연계거래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
- ☐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여 주식시장의 매매체결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고
 - 증선위 상임위원을 반장으로 한 「매매제도 개선반」을 구성하여 주식관리 절차 전반을 재점검하고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
- ☐ 또한 체결된 매매물량에 대해 결제불이행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인 삼성증권이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음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